

『周易』의 文王八卦圖에 근거한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의 고찰

林炳學*

차례

- I. 시작하는 말
- II. 동무의 저술에 나타난 文王八卦圖
- III. 文王八卦圖의 철학적 의미
- IV. 文王八卦圖와 「性命論」의 관계
 1. 文王八卦圖와 天·人(耳目鼻口·肺脾肝腎)
 2. 文王八卦圖와 性·命(頤臆臍腹·頭肩腰腎)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東武遺稿』의 '東武自註'와 『격치고』 「儒略」에서 실마리를 얻어, 『주역』의 文王八卦圖를 통해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밝히고 있는 『동의수세보원』 제1권 「性命論」을 분석·고찰하였다.

동무는 '東武自註'에서 「性命論」의 天機 有四를 文王八卦圖의 卦와 방위로 직접 주석하였으며, 또 「四端論」에서는 '肺脾肝腎을 네 모퉁이(四維) 四象'이라 하여, 文王八卦圖를 통해 사상의학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 충남대학교 철학과 시간강사

「性命論」에서는 자신의 四象의 사유체계에 근거하여, 인간 존재를 天機·人事·性·命의 구조로 논하면서, 天機인 天時·世會·人倫·地方은 耳目鼻口와·人事인 事務·交遇·黨與·居處는 肺脾肝腎과 결부시키고, 性인 額臆臍腹에는 籌策·經綸·行檢·度量이 있고, 命인 頭肩腰臀에는 識見·威儀·材幹·方略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文王八卦圖에 배치하면, 天機는 네 正方に 위치하여 天時(耳)는 離卦(☲)에·世會(目)는 震卦(☳)에·人倫(鼻)은 坎卦(☵)에·地方(口)은 兌卦(☱)가 각각 배치되고, 人事는 네 모퉁이에 위치하여 肺(事務)는 巽卦(☴)에·脾(交遇)는 艮卦(☶)에·肝(黨與)은 乾卦(☰)에·腎(居處)은 坤卦(☷)에 각각 배치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논리 구조로 額臆臍腹은 네 正方に, 頭肩腰臀은 네 모퉁이에 배치되어, 額은 離卦(☲)·臆은 震卦(☳)·臍는 坎卦(☵)·腹은 兌卦(☱)에 각각 배치되고, 頭는 巽卦(☴)·肩은 艮卦(☶)·腰는 乾卦(☰)·臀은 坤卦(☷)에 각각 결부되어 文王八卦圖에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文王八卦圖를 통해 「性命論」의 天機·人事·性·命의 四象의 사유체계가 완전하게 결부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주제어

東武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周易』, 四象醫學, 文王八卦圖, 性命論.

I. 시작하는 말

동무는 『동의수세보원』 甲午舊本의 間紙에서 “마음에 깊이 두어 생각함이 진실로 ‘易道’에 있다.”¹⁾라 하고, 『格致藁』 제2권 「反誠箴」에서는 『주역』 繫辭上篇 제11장의 인용을 통해 太極은 마음이고, 兩儀는 마음과 몸이

1)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 “潛心之下, 眞有易道存焉. 反掌之間, 似乎兵法寓矣”

고, 四象은 事心身物로²⁾ 규정하여, 四象哲學이 易學의 진리(易道)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그의 저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太極이나 陰과 陽, 太陽·太陰·少陽·少陰 등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주역』에 근거한 것이다. 또 동무의 평전을 쓴 李能和(1869~1945)와 六堂 최남선(1890~1957)도 동무의 학문이 『周易』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였다.³⁾

그러나 현재 동무의 철학사상에 대한 연구는 송대 성리학이나 조선의 유학자들의 心性論과 비교 연구를 하거나, 동무의 四象說을 인간 안에 존재하는 경험적 존재로 파악하여 유학에 근거하되 경험의 관점에서 심성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또 한의학계에서는 한의학의 이론적 기초인 漢代 이후 내려온 陰陽五行說에 근거하여 사상의학을 연구하고 있다.⁴⁾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동무의 四象哲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周易』의 학문 체계에 근거해야 한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주역』의 文王八卦圖는 북송의 易學者 邵康節(1011

2) 『格致藁』, 『反誠箴』, 巽箴, “易曰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太極心也, 兩儀心身也, 四象事心身物也.”

3) 이능화는 “(동무는) 經史와 子集을 모두 통달하였는데 그 중에 『주역』을 더욱 좋아하여 그 오묘한 뜻을 연구하기에 몰두하였다. 이렇게 수년을 연구하는 동안에 마침내 『주역』의 이치를 통달하여 그 妙諦를 발명하게 되었다.”라고 하였고(朝光社 編輯, 『朝鮮名人傳』, 朝光社, 1948, 341쪽.) 최남선은 「시문독본」에서 “一日은 書樓에서 周易을 발견하고 久待하던 異物을 偶獲한 것처럼 大喜注心하여, 寢餐을 忘廢하기에 至하여, 母氏 匙箸를 代進하되 食味를 辨치 못하며 泥塑와 如히 終日端坐하여 奧義를 深蹟하더라.”라고 하였다.(六堂전집편찬위원회 편, 『육당최남선 전집』, 현암사, 1974, 558쪽)

4) 임병학, 『『格致藁』에 나타난 이제마의 易學的 사유체계(1)-학문연원과 四象의 역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제132집, 퇴계학연구원, 2012, 180쪽.

~1077)이 『주역』 說卦 제5장에 근거하여 ‘文王後天八卦圖’를 그린 이후에, 朱子가 성리학의 철학적 근거를 담고 있는 『易學啓蒙』 제2권 「原卦畫」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모든 조선의 유학자들의 관심이었던 八卦圖이다.⁵⁾

동무는 『格致彙』에서 『역학계몽』 제2권 「원괘획」에서 논한 ‘易有太極’ 절과 ‘伏羲八卦圖’, ‘文王八卦圖’를 인용하여, 자신만의 사상철학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특히 「儒略」에서는 文王八卦圖에 인간 본성의 이치가 혼연하다고 하는 등 그의 저서 여러 곳에서 文王八卦圖를 논하고 있다.⁶⁾

文王八卦圖와 四象哲學에 대하여, 이창일은 “복희·문왕 패상과 그에 기반한 한의학 그리고 새로운 易象과 모종의 부합을 보이는 동무 사상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하는 미답의 사유 지평이지 一曲의 논리로 배척될 수 없다”⁷⁾고 하면서, 易學과 사상철학의 새로운 탐구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또 八卦圖의 八卦와 동무철학의 연관성에 대해 지규용은 ‘『周易』의 八卦 卦象과 東武의 事心身物에 대한 배속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하고, 『周易』에서 밝힌 八卦의 性情을 근거로 事心身物에 대하여 나름대로 해석하기도 하였다.⁸⁾

이에 文王八卦圖의 철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四象醫學의 철학적 원리를 집약하고 있는 『동의수세보원』 제1권 「성명론」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제

5) 박권수, 2004, 「조선후기 象數易學의 발전과 변동 - 『易學啓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사상사학』, 제22집, 281면 참조.

6) 임병학, 「주자의 『易學啓蒙』에 근거한 동무 이제마의 역학적 사유체계의 특징」, 『한국문화』 제66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14, 447~448쪽.

7) 이창일, 「하성문고 소장 『東武遺稿』에 대하여 - 문헌 성립 考定과 2차 삽입된 <東武自註> 검토를 중심으로 -」, 『장서각』, 제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58쪽.

8) 지규용, 『동무 격치고 역해』, 도서출판 영림사, 2001, 377쪽.

2장에서는 동무의 저술에 나타난 文王八卦圖를 먼저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설괘 제5장에서 밝히고 있는 문왕팔괘도의 철학적 의미를, 제4장에서는 文王八卦圖와 「性命論」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동무의 저술에 나타난 文王八卦圖

사상철학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격치고』를 분석해보면, 동무가 논하고 있는 『周易』의 학문적 내용은 3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⁹⁾

먼저 「反誠箴」에서 繫辭上篇 제11장의 ‘易有太極’절을 인용하면서 四象을 事心身物로 규정한 것이며,¹⁰⁾ 둘째는 「反誠箴」 서문에서는 “形狀과 理致에서 卦象을 취함은 단지 마음속으로 헤아린 견해(臆見)이지만, 그 卦象이 여덟 개가 있음은 진실로 伏羲易의 卦象이 이와 같다고 일컫는 것은 아니다.”¹¹⁾라고 하여, 伏羲八卦圖를 논한 것이다.

셋째는 제1권 「儒略」에서 “그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그 본성을 알고 그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뜻을 씀이 무궁하며, 그 본성을 아는 사람은 본성의 이치를 모두 얻게 된다. 본성의 이치는 文王易의 卦象에 혼연하고 온전히 나의 지각 속에 갖추어진 것이니 ‘본성을 다한다’고 말하는 것이

9) 『격치고』에서 논한 『주역』의 학문적 내용은 임병학의 「주자의 『易學啓蒙』에 근거한 동무 이제마의 역학적 사유체계의 특징」(『한국문화』 제66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14.)을 참고 바람.

10) 『格致彙』, 「反誠箴」, 巽箴, “易曰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太極心也, 兩儀心身也, 四象事心身物也.”

11) 『格致彙』, 「反誠箴」, “形理之取象 只是臆見而其象有八, 非眞謂伏羲易象如此也.”

다.”¹²⁾라고 하여, 文王八卦圖를 언급 한 것이다.

그런데 동무의 四象哲學은 기본적으로 儒學에서 밝히고 있는 인간 존재의 규명을 통해¹³⁾ 자신의 독창적인 철학사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儒略』에서 인간 本性의 이치가 文王八卦圖에 있다고 한 것에서 文王八卦圖의 원리가 자신이 창안한 사상철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그는 『東武遺稿』 제3권 「性命論」에서

“地方은 곧 少陰이니 위가 끊어진 兌卦로 西方이고, 人倫은 곧 太陰이니 가운데 이어진 坎卦로 北方이다. 이 두 방위는 오른쪽 위를 열어 눌러서 땅은 남고 하늘은 부족한 방위이다. 그러므로 ‘첫째는 지방이다’라고 하였다.

世會는 곧 少陽이니 아래가 끊어진 巽卦(아래가 이어진 震卦)로 東方이고, 天時는 곧 太陽이니 가운데가 빈 離卦로 南方이다. 이 두 방위는 왼쪽 아래를 열어 눌러서 하늘은 남고 땅은 가득 차지 않는 방위이다. 그러므로 ‘넷째는 천시이다.’라고 하였다.”¹⁴⁾

라고 하여, 『東醫壽世保元』 제1권 「性命論」의 天機 有事를 文王八卦圖의 方位와 卦에 배치하고 있다. 즉, 地方은 兌卦(☱) · 人倫은 坎卦(☵) · 世會는 震卦(☳) · 天時는 離卦(☲)에 각각 연계시키고 있다.¹⁵⁾

12) 『格致彙』, 「儒略」, 天時, “盡其心者 知其性, 盡其心者 無窮用意也, 知其性者 盡得性理也, 性理者 文王易象 渾然全備於吾之知覺中 曰盡性”

13) 『格致彙』, 「儒略」, 天下, “學問, 哲也.”, 天時, “知人, 難哲.”

14) 『東武遺稿』, 제3권 「性命論」, “地方即少陰兌上絕, 西方也. 人倫即太陰坎中連, 北方也. 此兩方, 關鎖右上, 地有餘天不足之方, 故一曰地方云. …… 世會, 即少陽巽下絕, 東方也.(震下連) 天時, 即太陽離虛中, 南方也. 此兩方, 關鎖左下, 天有餘地不滿之方, 故四曰天時云.”

15) 여기서 兌卦 서방 · 坎卦 북방 · 離卦 남방은 文王八卦圖와 일치하지만, 동방이라고 한 巽卦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性命論」을 설명하면서 3卦가 일치하고 하나가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巽卦는 震卦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東武自註’로 불리는 『동무유고』 제3권 「성명론」에서 동무가 직접 文王八卦圖의 八卦를 통해 「성명론」에 대하여 주석하고 있기 때문에 四象醫學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 『東醫壽世保元』이 『주역』의 문왕팔괘도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武自註에서 밝힌 文王八卦圖의 원리를 근거로 『동의수세보원』 제1권을 해설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동석은 『동의수세보원주해』에서 자신만의 陰陽五行說에 바탕하여 文王八卦圖에 바탕한 ‘天機運行圖’를 그리고, 그것으로 「性命論」을 해석하고 있다.¹⁶⁾ 그러나 동무가 논하지 않는 十二地支(干支)와 五行을 臟腑와 연결시키는 등 건강부회가 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창일은 『동무가 남긴 글 東武遺稿』에서 위 인용문을 설명하면서 ‘그 방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文王八卦方位之圖의 배열을 기본으로 삼고 있지만, 東方을 巽卦라 하여 文王八卦圖와 정확히 부합하지 않지만 東南도 대체로 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文王八卦圖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¹⁷⁾

또한 文王八卦圖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을 「四端論」과 「臟腑論」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오장의 마음은 중앙의 태극이고, 오장의 폐비간신은 네 모퉁이의 四象이다. 중앙의 태극은 聖人の 태극으로 衆人の 태극에서 높이 나온 것이고, 네 모퉁이의 四象은 성인의 사상으로 중인의 사상에서 널리 통한 것이다.”¹⁸⁾

16) 한동석, 『동의수세보원주해』, 성리회출판사, 1967, 13쪽.

17) 이창일, 『동무 이제마가 남긴 글 東武遺稿』, 창계, 1999, 339쪽.

18)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中

“마음(心)은 한 몸의 주재가 되고, (肺脾肝腎은) 모퉁이에 지고 마음을 등으로 하여”¹⁹⁾

라고 하여, ‘네 모퉁이(四維)’ 四象과 ‘모퉁이를 지고(負隅)’에 대한 언급에 주목하게 된다.

동무철학의 학문적 연원인 儒學에서 ‘네 모퉁이(四維)’라 이름 할 수 있는 그림은 『周易』에서 八卦로 구성된 伏羲八卦圖와 文王八卦圖가 있으며, 또 數理를 통해 易道를 표상하는 河圖와 洛書 가운데 洛書가 있다.

그런데 동무는 河圖·洛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伏羲八卦圖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다름이 있다고²⁰⁾ 하였으니, 네 모퉁이는 文王八卦圖의 방위로 귀결되는 것이다.

위 「四端論」의 네 모퉁이 방위에 대하여, 사상의학 연구의 개척자인 홍순용·이을호도 “방위설²¹⁾에 의하면 乾(西北)·坤(西南)·艮(東北)·巽(東南)을 四維라 한다. 그러나 인체의 사유는 心을 中央之太極으로 삼고 肺·脾·肝·腎이 마치 방위설적 四維인양 설정한 것이다.”²²⁾라고 하여, 文王八卦圖의 네 모퉁이 卦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동무의 四象哲學과 『周易』 象數易學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정리

央之太極 聖人之太極 高出於衆人之太極也, 四維之四象 聖人之四象 旁通於衆人之四象也.”

19)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心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20) 『格致彙』, 「反誠箴」, “形理之取象, 只是臆見而其象有八, 非眞謂伏羲易象如此也.”

21) 여기서 방위설은 아래에서 밝히고 있는 文王八卦圖에 근거한 나경의 방위설임을 알 수 있다.

22) 홍순용·이을호, 『사상의학원론』, 행림출판, 1976, 39쪽.

그렇지만 文王八卦圖의 원리를 통해 『동의수세보원』이 논한 사상의학의 철학적 근거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할 필요가 있는데, 동무가 『격치고』에서 논하고 있는 『周易』의 학문적 내용은 宋代 圖書象數易學을 집성한 『易學啓蒙』의 제2권 「원괘획」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²³⁾ 宋代에 확정된 八卦圖에 자신의 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무는 『易學啓蒙』 제1권 「本圖書」에서 논하고 있는 河圖·洛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특히 河圖·洛書로 표상되는 易學의 五行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송대 圖書象數易學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여, 漢代 象數易學이나 기존 漢醫學에서 논하고 있는 陰陽五行說의 입장에서 동무철학을 논하는 것은 사상철학을 왜곡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²⁴⁾

한편 동양의 역사 속에서 『周易』 설괘 제5장에서 근거를 둔 文王八卦圖의 八卦 방위는 방위를 나타내는 기구인 ‘나경’²⁵⁾(아래 그림)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동무가 文王八卦圖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23) 임병학, 앞의 논문, 211쪽 참조.

24) 『格致彙』, 「反誠箴」에서는 “물은 지극히 맑으며 파도가 일지 않고, 불은 지극히 말리면 습기가 침범하지 못하고, 나무가 지극히 곧으면 가지가 굽지 않고, 쇠가 지극히 날카로우면 칼이 둔해지지 않는다.(水極清也 波不揚也, 火極燥也 濕不侵也, 木極真也 枝不曲也, 金極利也 刀不鈍也.)”라고 한 것을 五行을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것은 水火木金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지규용, 앞의 책, 2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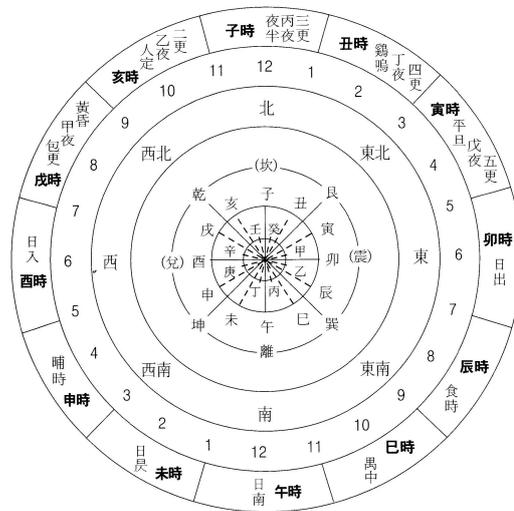
또 『동의수세보원』 초본권에서도 “폐는 나무를 상징하고, 비는 불을 상징하고, 간은 쇠를 상징하고, 신은 물을 상징한다.(肺象木 脾象火 肝象金 腎象水)”라고 하였으나, 이것도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통해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이지, 易學의 근본원리인 五行原理를 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5) 한국역사연구회 편, 『역사문화수첩』, 역민사, 2009, 192쪽 ④시각·방위도

Ⅲ. 文王八卦圖의 철학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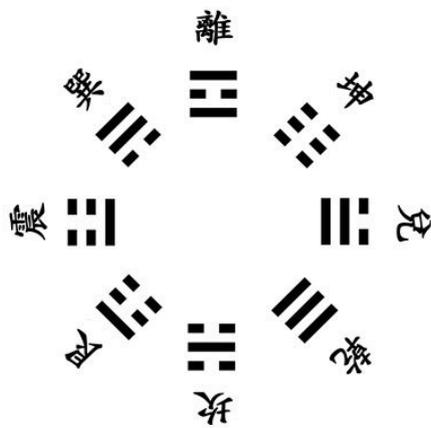
易學史에서 文王八卦圖를 철학적 문제로 제기한 학자는 북송의 邵康節이다. 그는 종래의 역학사상을 종합하여 ‘先天易學’이라는 자신의 독창적인 思想을 전개하면서, 『周易』 說卦 제3장과 제4장에 근거하여 伏羲先天八卦圖를, 說卦 제5장과 제6장에 근거하여 文王后天八卦圖를 주장하였다.

소강절은 “선천도의 팔괘 차서는 건괘에서 시작하여 곤괘에서 마치는 것이니 이것이 선천이고 복희팔괘도이다. 『주역』에서 상제가 震卦에서 나와서부터 艮卦에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는 이것이 문왕팔괘도이다.”²⁶⁾라고 하여, 伏羲八卦圖는 先天으로, 文王八卦圖는 後天으로 설명하여



26) 『皇極經世書』, 三 觀物內篇之一, “先天圖八卦次序, 始於乾而終於坤, 此先天也, 伏羲八卦也, 周易自帝出乎震, 至成言乎艮, 此文王八卦也.”

圖卦八王文



易學의 先後天論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소강절의 先天易學을 계승하면서 性理學을 집성한 朱子가 자신의 圖書象數易學의 체계를 밝힌 『易學啓蒙』 제2권 「원괘회」에서 文王八卦圖(옆의 그림)를 後天의 八卦圖로 규정함으로써, 중국과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면 文王八卦圖를 설명하고 있는 『주역』 說卦 제5장의

철학적 의미를 고찰해보자.

說卦 제5장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단락에서는

“上帝가 震卦에서 나오고, 巽卦에서 가지런해 지고, 離卦에서 서로 나타나고, 坤卦에서 지극히 길러지고, 兌卦에서 말씀을 기뻐하고, 乾卦에서 싸우고, 坎卦에서 수고롭고, 艮卦에서 말씀이 이루어진다.”²⁷⁾

라고 하여, 八卦의 작용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이어서

27) 『周易』, 說卦 제5장, “帝出乎震, 齊乎巽, 相見乎離, 致役乎坤, 說言乎兌, 戰乎乾, 勞乎坎, 成言乎艮.”

“만물이 震卦에서 나오니 震卦는 東方이다. 巽卦에서 가지런하니 巽卦는 東南이고, 가지런하다는 것은 만물의 깨끗함과 가지런함을 말한다. 離卦는 밝음이니 萬物이 모두 서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南方의 卦니 성인이 南面하여 천하를 들어서 밝음을 향하여 다스리니 모두 이것에서 취한 것이다. 坤卦는 땅이니 만물이 모두 지극히 길러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坤卦에서 지극히 길러진다고 한다. 兌卦는 正秋이니 만물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兌卦에서 말씀을 기뻐한다고 한다. 乾卦에서 싸운다는 것은 乾卦는 西北의 卦이니 음양이 서로 얽은 것을 말한다. 坎卦는 물이니 正北方의 卦이니 수고로운 卦로 만물의 돌아가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坎卦에서 수고롭다고 한다. 艮卦는 東北의 卦이니 萬物의 마침을 이루는 곳이고 시작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艮卦에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²⁸⁾

라고 하여, 文王八卦圖에 배치된 八卦의 철학적 의미와 방위를 직접 밝히고 있다.

위 두 인용문 첫 구절에서 上帝와 萬物이 모두 震卦(☳)에서 나온다고 하였는데, 上帝에 대하여 雷地豫卦(☳) 大象辭에서는 “선왕이 豫卦를 써서 음악을 지어 덕을 숭상하여 그윽히 상제에게 올려 돌아간 조상과 아비에 짝하는 것이다.”²⁹⁾라고 하여, 上帝가 돌아간 조상과 짝을 하는 인격적 존재임을 밝히고, 火風鼎卦(☲) 象辭에서는 “나무로써 불에 순응함은 삶아서 익힘이니, 聖人이 삶아서 상제에게 제향하고, 크게 삶아서 聖賢을 기르는

28) 『周易』, 說卦 제5장, “萬物出乎震, 震東方也. 齊乎巽, 巽東南也. 齊也者, 言萬物之潔齊也. 離也者, 明也. 萬物皆相見, 南方之卦也. 聖人南面而聽天下, 嚮明而治, 蓋取諸此也. 坤也者, 地也, 萬物皆致養焉, 故曰致役乎坤. 兌正秋也, 萬物之所說也, 故曰說言乎兌. 戰乎乾, 乾西北之卦也, 言陰陽相薄也. 坎者, 水也. 正北方之卦也, 勞卦也, 萬物之所歸也, 故曰勞乎坎. 艮東北之卦也, 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 故曰成言乎艮.”

29) 『周易』, 天澤履卦, 大象辭, “先王, 以作樂崇德, 殷薦之上帝, 以配祖考.”

것이다.”³⁰⁾라고 하여, 聖人이 天地의 主宰者인 上帝의 뜻을 자각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賢人을 기른다고 하였다.

또 萬物에 대하여는 澤山咸卦(䷞)와 雷風恒卦(䷟) 象辭에서 “천지가 감응하여 만물이 변화하여 나오고, 성인이 人心에 감응하여 천하가 화평하니 그 감응하는 바를 보면 天地萬物의 뜻을 가히 볼 수 있다.”³¹⁾ · “그 항상 하는 바를 보면 천지만물의 뜻을 가히 볼 수 있다.”³²⁾라 하고, 繫辭下篇에서는 “신명의 덕에 감통하며 만물의 뜻을 나누는 것이니”³³⁾ · “天地의 기운이 영김에 만물이 변화하여 순일하고 남녀가 정을 엮음에 만물이 변화하여 나오나니”³⁴⁾라고 하여, 만물은 모든 사물을 뜻하는 동시에 天地之道가 드러나는 인격적 뜻을 가진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周易』에서 上帝는 天地의 주재자로 인격적 존재이며, 萬物은 天地의 인격성을 드러내는 현상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上帝의 主宰작용을 현상적으로 드러내는 존재가 만물이기 때문에 上帝와 萬物이 동일하게 震卦(䷲)에서 始生된다고 하였다. 또 震卦(䷲)는 聖人을³⁵⁾ 상징하는 때로 萬物 가운데 가장 영명한 존재인 인간은 聖人之道에서 始生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始生한 萬物이 성장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巽卦에서 가지런하니’이

30) 『周易』, 火風鼎卦, 象辭, “以木巽火, 亨飪也, 聖人亨, 以享上帝, 以大亨, 以養聖賢.”

31) 『周易』, 澤山咸卦, 象辭, “天地感而萬物, 化生, 聖人感人心而天下, 和平, 觀其所感而天地萬物之情, 可見矣.”

32) 『周易』, 雷風恒卦, 象辭, “觀其所恒而天地萬物之情, 可見矣.”

33) 『周易』, 繫辭下篇, 제2장,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34) 『周易』, 繫辭下篇, 제6장, “天地, 網緼, 萬物, 化醇, 男女, 構精, 萬物, 化生.”

35) 『周易』, 說卦 제10장, “震, 一索而得男, 故謂之長男.”, 제11장, “震, 爲長子.”

다. 巽卦(☴)는 神道·木道를³⁶⁾ 상징하는 것으로 天地의 合德에 의해 만물이 성장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神道를 통해 만물이 깨끗하고 가지런해지는 것이다.

다음 離卦(☲)는 日月之道를³⁷⁾ 상징하는 것으로 天地의 본성이 日月로 드러나면서 만물의 본질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日月原理를 인간 주체적으로 자각하여 남쪽을 향해 백성의 마음을 들어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다.

坤卦(☷)는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기르는 원리를³⁸⁾ 나타내기 때문에 ‘坤卦에서 지극히 길러진다’라 하였다. 또 兌卦(☱)는 백성을³⁹⁾ 상징하는 것으로 坤卦(☷)에 의해 길러진 백성들이 聖人之道에 즐거워하는卦이다. 聖人の 뜻은 말씀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兌卦에서 말씀을 기뻐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乾卦(☰)에서 싸우는 것은 陰陽이 두텁게 합덕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⁴⁰⁾ ‘음양이 서로 얽은 것을 말한다’라 하였다. 陰陽은 君子와 聖人을 상징하는 것으로 君子가 聖人之道를 공부하지만 아직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상태를 나타낸다. 君子가 의심이 생겼을 때 僣난이 있게 되는데, 이를 ‘坎卦에서 수고롭다’고 하였다. 또 坎卦(☵)는 僣난을⁴¹⁾

36) 『周易』, 風地觀卦, 象辭, “觀天之神道而四時, 不忒.”, 重風巽卦, 象辭, “象曰重巽, 以申命.”, 說卦 제11장, “巽, 爲木, 爲風, 爲長女.”

37) 『周易』, 重火離卦, 象辭, “象曰離, 麗也, 日月, 麗乎天”, 說卦 제11장, “離, 爲火, 爲日.”

38) 『周易』, 重地坤卦, 象辭, “坤厚載物, 德合无疆, 含弘光大, 品物, 咸亨.”, 說卦 제11장, “坤, 爲地, 爲母, 爲布, 爲釜, 爲吝嗇, 爲均, 爲子母牛,”

39) 『周易』, 重澤兌卦, 象辭, “象曰兌, 說也. …… 說以先民, 民忘其勞, 說以犯難, 民忘其死, 說之大, 民勸矣哉.”, 說卦 제11장, “兌, …… 爲羊.”

40) 『周易』, 重地坤卦, 文言, 上六爻辭, “陰疑於陽, 必戰, 爲其嫌於无陽也.”

41) 『周易』, 重水坎卦, 象辭, “象曰習坎, 重險也.”, 說卦 제11장, “坎, 爲水 …… 其於人也,

상징하는 것으로 이 어려움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기 때문에 ‘만물이 돌아가는 바’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艮卦(☶)는 萬物의 終始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하였는데, 艮卦(☶)는 聖人之道와 대응되는 君子之道를 상징하는 괘로 終始變化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震卦(☳)에서 시생된 聖人の 말씀이 艮 君子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文王八卦圖는 만물이 震卦(☳, 聖人之道)에서 始生하여 君子之道인 艮卦(☶)에서 長成됨을 상징하는 卦圖로 모든 인격적 존재(上帝)가 ‘震卦가 변화하여 艮卦가 되는(震變爲艮)’⁴²⁾ 것을 표상하고 있다. 또 文王八卦圖의 卦상을 보면, 南北의 축인 坎(☵) · 離卦(☲)는 日月을 상징하는 卦이기 때문에 日月의 변화원리를 중심축으로 하여, 만물이 도덕적 존재로 성장하는 뜻을 담고 있는 卦圖임을 알 수 있다.⁴³⁾

즉, 文王八卦圖는 만물이 시생하여 장성해가는 원리를 표상하는 八卦圖이기 때문에 현존적 존재인 인간의 마음을 중심 본체로 하고, 四象이 네 정방과 네 모퉁이로 나누어져 八卦를 형성하여 生長의 원리를 표상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先秦易學에서의 밝히고 있는 文王八卦圖에 대한 규정과 동무가 『儒略』에서 언급한 내용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爲加憂, 爲心病, 爲耳痛, 爲血卦.”

42) 震卦의 聖人之道가 艮卦의 君子之道로 드러나는 원리가 震變爲艮의 原理인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卦가 64괘에서는 山雷頤卦(☶)이다.

43) 류남상, 임병학, 『一夫 傳記와 正易 哲學』, 도서출판 연경원, 2013, 174쪽.
『주역』의 文王八卦圖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류남상의 『周 · 正易經合編』(도서출판 연경원, 2011.) 7~12쪽 참고 바람.

『周易』에서 文王八卦圖는 인간 마음을 본체로 하여 그 작용인 四象이 八卦로 배치되어 인간 본성의 작용원리를 표상한다고 한 것과 「儒略」에서 인간 본성의 이치가 文王八卦圖에 혼연하다는 것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

IV. 文王八卦圖와 「性命論」의 관계

『東醫壽世保元』 제1권은 「性命論」·「四端論」·「擴充論」·「臟腑論」의 네 章으로 구성되어, 인간 존재에 대한 규명을 통해 四象醫學의 철학적 원리를 밝히고 있다. 특히 동무는 자신의 의학이론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밝혀야 할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존재 구조를 「性命論」⁴⁴⁾에서 논하고 있다.

동무는 「性命論」에서 자신의 四象哲學에 근거하여 인간 존재를 天·人·性·命으로 논하고 있다. 天은 耳目鼻口에, 人은 肺脾肝腎에, 性은 領臆臍腹에, 命은 頭肩腰臀에 각각 연계시켜 四象의 구조로 밝히고 있다.

본 장에서는 文王八卦圖와 天·人, 文王八卦圖와 性·命으로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44) 「性命論」은 『周易』의 “乾道가 變化함으로서 각각 性命이 바르게 된다.(重天乾卦 象辭, 乾道變化, 各正性命.)”와 “옛날에 聖인이 『周易』을 지은 것은 장차 性命의 이치에 순응하게 하고자 함이며(說卦 제2장, 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에 그 명칭의 직접적인 근거를 둔 것으로 ‘性’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품부 받은 ‘本來性’이고, ‘命’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역사적 使命’이라 하겠다.(김만산, 『周易의 관점에서 본 사상의학원리(1) -性命論에 관하여-』, 『東西哲學研究』 제19집, 한국 동서철학연구회, 1999, 30쪽 참조.)

1. 文王八卦圖와 天·人(耳目鼻口·肺脾肝腎)

동무는 「性命論」 첫 문장에서

“天機에 넷이 있는데, 첫째는 地方이고, 둘째는 人倫이고, 셋째는 世會이고, 넷째는 天時이다. 人事에 넷이 있는데, 첫째는 居處이고, 둘째는 黨與이고, 셋째는 交遇이고, 넷째는 事務이다. 귀로 天時를 들으며, 눈으로 世會를 보며, 코로 人倫을 냄새 맡으며, 입으로 地方을 맛본다. 天時는 지극히 蕩한 것이고, 世會는 지극히 큰 것이고, 人倫은 지극히 넓은 것이고, 地方은 지극히 먼 것이다. 肺는 事務에 정통하며, 脾는 交遇에 합하며, 肝은 黨與를 세우며, 腎은 居處를 정한다. 事務는 능히 닦아야 하고, 交遇는 능히 이루어야 하고, 黨與는 능히 정제해야 하고, 居處는 능히 다스려야 한다.”⁴⁵⁾

라고 하여, 天機인 天時·世會·人倫·地方은 耳目鼻口와 人事인 事務·交遇·黨與·居處는 肺脾肝腎에 각각 결부시켜 논하고 있다.

먼저 『格致藁』를 중심으로 「性命論」의 天機 有四와 人事 有四의 철학적 의미를 간략히 고찰해보면, 天機는 항상 운행하는⁴⁶⁾ 天道로 인간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며, 네 가지 구성요소인 天時·世會·人倫·地方은 “天勢는 넓고 크며 世會는 어지럽게 다투며, 人倫은 무성하게 번식하며, 地方은 광활하여 막막하다.”⁴⁷⁾라 하고, “天勢는 惡을 기울이는 것이고, 世會는 이익

4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天機有四, 一曰地方, 二曰人倫, 三曰世會, 四曰天時. 人事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遇, 四曰事務.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天時極蕩也, 世會極大也, 人倫極廣也, 地方極邈也.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 事務克修也, 交遇克成也, 黨與克整也, 居處克治也.”

46) 『格致藁』, 「儒略」, 天勢, “天機 恒轉.”

47) 『格致藁』, 「儒略」, 天勢, “天勢浩瀚, 世會紛競, 人倫蕃殖, 地方曠邈.”

을 흥하는 것이며, 人倫은 善을 닦는 것이고, 地方은 생을 보호하는 것이다.”⁴⁸⁾라고 하여, 天時를 天勢라고 하고, 善惡의 기준이 되는 인간의 윤리적 삶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또 人事는 인간이 天機에 바탕하여 품부 받은 德性을 구현하는 것으로, 네 가지 구성요소인 事務·交遇·黨與·居處는 「反誠箴」에서 “事務는 과감히 결단함과 같은 것이 없고, 交遇는 관대하고 넓은 것만 같은 것이 없고, 黨與는 바르고 큼만 같은 것이 없고, 處所는 편안하고 진중함만 같은 것이 없다.”⁴⁹⁾라고 하여, 居處를 處所라 하고, 결단함·관대하고 넓은·正大함·편안하고 진중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天機와 人事에 대하여 “天時は 大同한 것이고 事務는 各立한 것이요, 世會는 대동한 것이고 交遇는 各립한 것이요, 人倫은 대동한 것이고 黨與는 各립한 것이요, 地方은 대동한 것이고 居處는 各립한 것이다.”⁵⁰⁾라고 하고, “대동한 것은 天이고 各립한 것은 人이며”⁵¹⁾라고 하여, 天機와 人事가 體用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性命論」에서는 “耳目鼻口는 천기를 깨닫는 것이고, 肺脾肝腎은 인사를 세우는 것이며”⁵²⁾라고 하여,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 天機과 人事를

48) 『格致藁』, 「儒略」, 天勢, “天勢傾惡也, 世會與利也, 人倫修善也, 地方保生也.”

49) 『格致藁』, 「反誠箴」, 允箴, “事務 莫如果斷, 交遇 莫如寬弘, 黨與 莫如正大, 處所 莫如寧衆.”

50)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天時大同也, 事務各立也, 世會大同也, 交遇各立也, 人倫大同也, 黨與各立也, 地方大同也, 居處各立也.”

51)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大同者天也, 各立者人也.”

52)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立於人也, 頤臆臍腹 行其知也, 頭肩腰腎 行其行也.”

깨닫고 세우는 형이상의 인격적 기관의 의미로 논하고 있다.

그러면 天機와 人事의 네 가지와 耳目鼻口·肺脾肝腎이 文王八卦圖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고찰해보자.

앞의 제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동무는 '동무자주'에서 天機 有四人 天時·世會·人倫·地方을 文王八卦圖의 네 정방에 배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모퉁이 방위에는 人事 有四人 事務·交遇·黨與·居處가 배치됨을 알 수 있다. 물론 「四端論」에서 肺脾肝腎을 네 모퉁이 四象이라고⁵³⁾ 한 것에서도 人事 有四가 네 모퉁이에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東武遺稿』의 '東武自註'에 근거하여 天機를 담고 있는 耳目鼻口는 네 정방에 배치되어 本體的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四端論」에 근거하여 人事를 담고 있는 肺脾肝腎이 네 모퉁이(維方)에서 작용하는 四象임을 알 수 있다.

이는 文王八卦圖의 정방은 본체적 의미를, 모퉁이는 작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철학적 의미와 일치하는 것이다.

먼저 天機 有四에서 天時(耳)는 離卦(☲)에·世會(目)는 震卦(☳)에·人倫(鼻)은 坎卦(☵)에·地方(口)은 兌卦(☱)에 각각 배치되는 의미를 說卦 제5장을 통해 설명해보면, 離卦(☲)는 밝음으로 성인이 南面하여 천하를 다스리기 때문에 耳는 天時를 밝히고 天時는 지극히 방탕하다고 하였으며, 震卦(☳)는 上帝와 萬物이 나오는 곳으로 聖人이 인간 삶의 원리를 밝히기 때문에 目은 世會를 보고 世會는 지극히 크다고 하였다.

53)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中央之太極 聖人之太極 高出於衆人之太極也, 四維之四象 聖人之四象 旁通於衆人之四象也.”

또 坎卦(☵)는 하늘의 中正之氣로 그 뜻을 대행하는 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鼻는 人倫을 냄새 맡고 人倫은 지극히 넓다고 하였으며, 兌卦(☱)는 성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口는 地方을 맛보고 地方은 지극히 멀고 아득하다고 하였다.

또한 文王八卦圖에서 네 모퉁이에 배치된 巽卦(☴)·艮卦(☶)·乾卦(☰)·坤卦(☷)에 배치되는 人事 有四·肺脾肝腎의 관계는 「擴充論」과 「臟腑論」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擴充論」에서는 肺와 耳·脾와 目·肝과 鼻·腎과 口를 연계시켜 논하고,⁵⁴⁾ 특히 「臟腑論」에서는 耳·胃脘·舌下(頷)·頭腦(頭)와 肺를 肺之黨이라 하고, 目·胃·兩乳(臆)·背脊(肩)와 脾를 脾之黨이라 하고, 鼻·小腸·臍·腰脊와 肝을 肝之黨이라 하고, 口·前陰(腹)·膀胱(臀)과 腎을 腎之黨이라 하여,⁵⁵⁾ 한 무리(黨)로 묶고 있다.

54)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聽, 能廣博於天時, 故太陽之神, 充足於頭腦而歸肺者大也, …… 太陰之嗅, 能廣博於人倫, 故太陰之血, 充足於腰脊而歸肝者 大也, …… 少陽之視, 能廣博於世會, 故少陽之氣, 充足於背脊而歸脾者 大也, …… 少陰之味, 能廣博於地方, 故少陰之精, 充足於膀胱而歸腎者 大也,”

55)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爲津海, 津海者, 津之所舍也, 津海之清氣, 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腦海, 腦海者, 神之所舍也, 腦海之腦汁清者, 內歸于肺, 濁滓外歸于皮毛, 故胃脘與舌耳頭腦皮毛, 皆肺之黨也.
水穀熱氣, 自胃而化膏, 入于臆間兩乳爲膏海, 膏海者, 膏之所舍也, 膏海之清氣, 出于目而爲氣, 入于背脊而爲膜海, 膜海者, 氣之所舍也, 膜海之膜汁清者, 內歸于脾, 濁滓外歸于筋, 故胃與兩乳目背脊筋, 皆脾之黨也.
水穀涼氣, 自小腸而化油, 入于臍爲油海, 油海者, 油之所舍也, 油海之清氣, 出于鼻而爲血, 入于腰脊而爲血海, 血海者, 血之所舍也, 血海之血汁清者, 內歸于肝, 濁滓外歸于肉, 故小腸與臍鼻腰脊肉, 皆肝之黨也.
水穀寒氣, 自大腸而化液, 入于前陰毛際之內爲液海, 液海者, 液之所舍也, 液海之清氣, 出于口而爲精, 入于膀胱而爲精海, 精海者, 精之所舍也, 精海之精汁清者, 內歸于腎, 濁滓外歸于骨, 故大腸與前陰口膀胱骨, 皆腎之黨也.”

따라서 肺(事務)는 耳와 한 무리로 巽卦(☴)에 · 脾(交遇)는 目과 한 무리로 艮卦(☶)에 · 肝(黨與)은 鼻와 한 무리로 乾卦(☰)에 · 腎(居處)은 口와 한 무리로 坤卦(☷)에 각각 배치되는 것이다.

이를 說卦 제5장의 내용을 통해 고찰해보면, 巽卦(☴)는 가지런하여 만물을 청결하고 질서 정연하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능히 닦아야 하늘이 자신에게 준 일을(事務) 처리하게 되니 그 시작이 되는 ‘肺’와 연계되며, 艮卦(☶)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마침과 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히 완성하여 사람을 사귀게(交遇) 되니 ‘脾’와 연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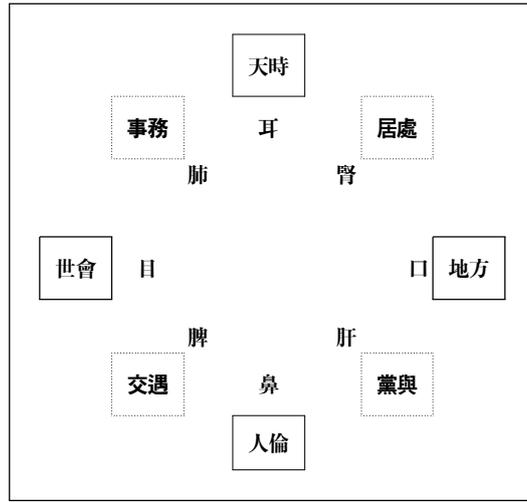
또 乾卦(☰)는 ‘乾之大始’로 위대한 시작이고⁵⁶⁾, 음과 양이 서로 엮어서 싸우기 때문에 능히 가지런히 정돈하여 나누어 모이게(黨與) 되니 ‘肝’과 연계되며, 坤卦(☷)는 ‘坤作成物’로⁵⁷⁾ 땅에서 만물을 지극히 길러 완성하기 때문에 능히 다스려서 삶의 터전을(居處) 이루고 살아가니 ‘腎’과 연계된다.⁵⁸⁾

이상에서 고찰한 說卦 제5장의 文王八卦圖에 근거하여 「性命論」의 天·人의 내용을 배치하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된다.

56) 『周易』, 繫辭上篇, 제1장, “乾知大始.”

57) 『周易』, 繫辭上篇, 제1장, “坤作成物.”

58) 생리적 입장에서 巽卦의 가지런함은 肺가 수축과 이완하는 일정한 작용으로, 艮卦의 終始변화는 脾의 완성하는 수용성으로, 乾卦의 陰陽相薄은 肝의 나누는 작용으로, 坤卦의 길러냄은 腎의 길러냄을 통한 生氣의 차원전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2. 文王八卦圖와 性·命(頷臆臍腹·頭肩腰臀)

「性命論」에서는 天機 有四와 人事 有四에 이어서

“턱에는 壽策이 있고, 가슴에는 經綸이 있고, 배꼽에는 行檢이 있고, 배에는 度量이 있다. 주책은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경륜은 自矜하지 말아야 하고, 행검은 自伐하지 말아야 하고, 도량은 自夸하지 말아야 한다. 머리에는 識見이 있고, 어깨에는 威儀가 있고, 허리에는 材幹이 있고, 엉덩이에는 方略이 있다. 식견은 반드시 빼앗음이 없어야 하고 위외는 반드시 사치함이 없어야 하고 재간은 반드시 게으름이 없어야 하고 방략은 반드시 도적질함이 없어야 한다.”⁵⁹⁾

59)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頷有壽策, 臆有經綸, 臍有行檢, 腹有度量. 壽策不可驕也, 經綸不可矜也, 行檢不可伐也, 度量不可夸也.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略.”

라고 하여, 인간의 몸을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의 四象의 구조로 논하고 있다.

앞 절에서 耳目鼻口는 天機를 깨닫고, 肺脾肝腎은 人事를 세우는 것이라 하여 생리적인 기관을 넘어선 인격적인 心官의 의미를 위주로 한다면, “턱과 가슴과 배꼽과 배는 그 知를 행하는 것이고, 머리와 어깨와 허리와 엉덩이는 行을 행하는 것이다.”⁶⁰⁾라고 하여,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은 知과 行을 실천하는 身의 작용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性命論」에서는 天機는 大同한 것이고 人事는 各立하는 것이라고,⁶¹⁾ 또 “대동한 것은 天이고 각립한 것은 人이며 널리 통하는 것은 性이고 홀로 행하는 것은 命이다.”⁶²⁾라고 하여, 耳目鼻口는 天·肺脾肝腎은 人·頤臆臍腹은 性·頭肩腰臀은 命에 각각 결부시키고 있다.

위 문장을 통해서 天人性命의 관계를 고찰하면, 天과 人·性과 命이 각각 體用의 관계이며, 또 大同한 天과 博通한 性이 서로 짝을 이루고, 各立한 人과 獨行하는 命이 짝을 이룬다고 하겠다.⁶³⁾

「臟腑論」에서도 “혀의 津海는 귀의 근본이며 젖의 膏海는 눈의 근본이며 배꼽의 油海는 코의 근본이며 전음의 液海는 입의 근본이다.”⁶⁴⁾라고

識見必無奪也, 威儀必無侈也, 材幹必無懶也, 方畧必無竊也.”

60)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立於人也, 頤臆臍腹 行其知也, 頭肩腰臀 行其行也.”

61)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天時大同也, 事務各立也, 世會大同也, 交遇各立也, 人倫大同也, 黨與各立也, 地方大同也, 居處各立也, 籌策博通也, 識見獨行也, 經綸博通也, 威儀獨行也, 行檢博通也, 材幹獨行也, 度量博通也, 方畧獨行也.”

62)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大同者天也, 各立者人也, 博通者性也, 獨行者命也.”

63) 임병학, 「동무 이제마의 四象의 사유체계와 『맹자』」,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3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244쪽.

64)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舌之津海, 耳之根本也, 乳之膏海, 目之根本也, 臍之油海,

하여, 耳目鼻口와 頤臆臍腹을 연계시키고, “두뇌의 賦海는 폐의 근본이고 등의 膜海는 비의 근본이고 허리의 血海는 간의 근본이고 방광의 精海는 신의 근본이다.”⁶⁵⁾라고 하여, 肺脾肝腎과 頭肩腰臀을 연계시키고 있다.

따라서 文王八卦圖에서는 耳目鼻口와 臍을 이루는 頤臆臍腹이 네 正方に 배치되고, 肺脾肝腎과 臍을 이루는 頭肩腰臀이 네 모퉁이에 배치되는 것이다.

즉, 頤은 離卦(☲) · 臆은 震卦(☳) · 臍는 坎卦(☵) · 腹은 兌卦(☱)가 각각 배치되는데, 설괘 제5장과 「성명론」의 내용을 통해 설명해보자.

離卦(☲)는 밝음(明)을 드러내고 성인이 南面하여 천하를 다스리기 때문에 頤에는 하늘의 충성스럽고 후덕한 소리를 좋아하는 籌策이 있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震卦(☳)는 상제와 만물이 나오는 곳으로 聖인이 인간 삶의 원리를 밝혔기 때문에 臆에는 세상의 부지런하고 검소한 색을 좋아하여 인간 삶을 이끌어가는 經綸이 있고 자궁하지 말아야 한다.

坎卦(☵)는 하늘의 뜻을 대행하는 水로 만물을 씻어주기 때문에 臍에는 인간의 믿음직하고 착실한 도덕적 냄새를 좋아하여 행위를 검속하는 行檢이 있고 자별하지 말아야 하며, 兌卦(☱)는 성인의 말씀을 이루는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腹에는 땅이 주는 어질고 사랑하는 맛을 좋아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인 度量이 있고 자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네 모퉁이에는 頭는 巽卦(☴) · 肩은 艮卦(☶) · 腰는 乾卦(☰) · 臀은 坤卦(☷)에 각각 배치되는데, 설괘 제5장과 「성명론」의 내용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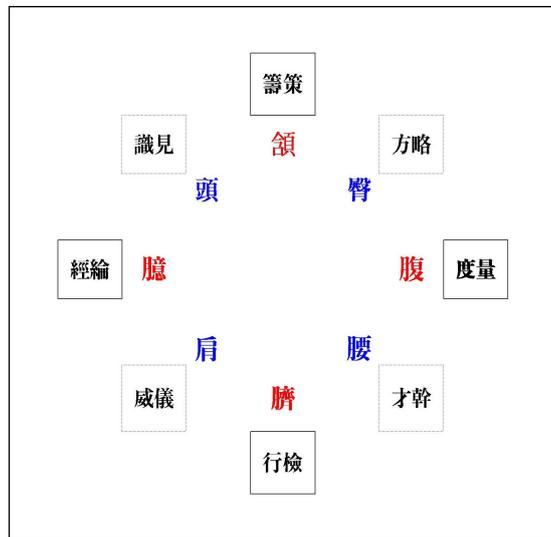
鼻之根本也, 前陰之液海, 口之根本也.”

65)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頭腦之賦海, 肺之根本也, 背脊之膜海, 脾之根本也, 腰脊之血海, 肝之根本也, 膀胱之精海, 腎之根本也.”

설명하면, 巽卦(☴)는 가지런하여 事務를 능히 닦기 때문에 頭는 일을 험뜯는 소리를 미워하는 識見이 있고 빼앗음이 없어야 하며, 艮卦(☶)는 군자로 사람을 사귀는 交遇와 결부되기 때문에 肩은 서로의 사귀음을 어지럽히고 어그러지게 하는 색을 미워하는 威儀가 있고 사치함이 없어야 한다.

乾卦(☰)는 하늘이 준 나누고 모이는 黨與가 있기 때문에 腰는 무리를 해치는 음흉한 냄새를 미워하는 材幹이 있고 게으름이 없어야 하며, 坤卦(☷)는 완성하여 삶의 터전인 居處를 다스리기 때문에 臀은 자기가 거처하는 곳을 흠치는 도둑의 맛을 미워하는 方略이 있고 도적질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文王八卦圖에 근거하여 頷臆臍腹과 頭肩腰臀의 내용을 배치하면 아래와 같다.



그런데 頷臆臍腹과 頭肩腰臀에 대하여

“턱에는 驕心이 있고, 가슴에는 矜心이 있고, 배꼽에는 伐心이 있고, 배에는 夸心이 있다. 교심은 意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긍심은 思慮를 자궁하는 것이고, 벌심은 操行을 자벌하는 것이고, 과심은 志操를 자과하는 것이다. 머리에는 擅心이 있고, 어깨에는 侈心이 있고, 허리에는 懶心이 있고, 엉덩이에는 욕심이 있다. 천심은 이익을 빼앗는 것이고, 치심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고, 나심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고, 욕심은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이다.”⁶⁶⁾

라고 하여, 頷臆臍腹에는 籌策·經綸·行檢·度量만 있는 것이 아니라 驕心·矜心·伐心·夸心이 있고, 頭肩腰臀에는 識見·威儀·材幹·方略만 있는 것이 아니라 奪(擅)心·侈心·懶心·竊心이 있다고 하였다.

『性命論』에서는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에 대하여 지혜롭고 어질다고 하였지만, 頷臆臍腹과 頭肩腰臀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불초하다고 하였고,⁶⁷⁾ 또 耳目鼻口는 하늘의 지혜로운 것이고 肺脾肝腎은 사람의 어짊이라 하였으나, 頷臆臍腹은 어리석음을 면치 못하고 頭肩腰臀은 不肖를 면치 못한다고 하였다.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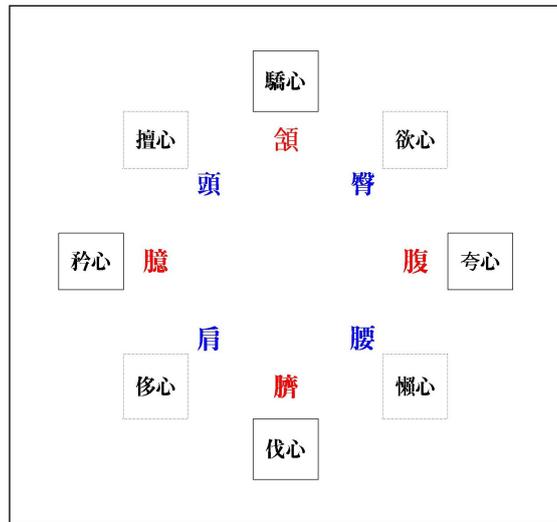
66)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頷有驕心, 臆有矜心, 臍有伐心, 腹有夸心. 驕心驕意也, 矜心矜慮也, 伐心伐操也, 夸心夸志也. 頭有擅心, 肩有侈心, 腰有懶心, 臀有欲心. 擅心奪利也, 侈心自尊也, 懶心自卑也, 欲心竊物也.”

67)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耳目鼻口 人皆知也, 頷臆臍腹 人皆愚也, 肺脾肝腎 人皆賢也, 頭肩腰臀 人皆不肖也.”

68)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人之耳目鼻口 天也, 天知也. 人之肺脾肝腎 人也, 人賢也. 我之頷臆臍腹 我自爲心而未免愚也, 我之免愚在我也. 我之頭肩腰臀 我自爲身而未免不肖也, 我之免不肖在我也.”

즉, 頷臆臍腹과 頭肩腰臀에는 어리석고 不肖한 마음인 誣世之心(邪心)과 罔民之心(怠心)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존하고 그 본성을 길러야’하고 ‘그 몸을 닦고 그 명을 세워야’⁶⁹⁾ 人格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文王八卦圖에 근거한 頷臆臍腹의 邪心과 · 頭肩腰臀의 怠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69)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人之頷臆臍腹之中, 誣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養其性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臀之下,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立其命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人皆自不爲堯舜者, 以此.”

V. 맺음말

동무는 자신의 철학사상을 담고 있는 『격치고』에서 伏羲八卦圖와 文王八卦圖를 직접 언급하면서, 伏羲八卦圖의 괘 이름과 뜻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기도 하고 다름이 있는 것은 깊은 연구가 미칠 바가 아니라고 하여, 易學의 八卦圖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논자는 『東武遺稿』의 ‘東武自註’와 『격치고』 「儒略」에서 실마리를 얻어, 文王八卦圖를 통해 四象醫學의 철학적 원리를 밝히고 있는 『동의수세보원』 제1권 「性命論」을 분석·고찰하였다.

동무는 ‘東武自註’에서 「性命論」의 天機 有四를 文王八卦圖의 卦와 방위로 직접 주석하였으며, 또 「四端論」에서는 ‘肺脾肝腎을 네 모퉁이(四維) 四象’이라 하여, 文王八卦圖를 통해 사상의학의 원리를 해석하고 있다.

「性命論」에서는 자신의 四象의 사유체계에 근거하여 인간 존재를 天·人·性·命의 구조로 논하면서, 天機인 天時·世會·人倫·地方은 耳目鼻口와 결부시키고, 人事인 事務·交遇·黨與·居處는 肺脾肝腎과 결부시키고, 性인 額臆臍腹에는 籌策·經綸·行檢·度量이 있고, 命인 頭肩腰臀에는 識見·威儀·材幹·方略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文王八卦圖에 배치하면, 天機는 네 正方に 위치하여 天時(耳)는 離卦(☲)에·世會(目)는 震卦(☳)에·人倫(鼻)은 坎卦(☵)에·地方(口)은 兌卦(☱)가 각각 배치되고, 人事는 네 모퉁이에 위치하여 肺(事務)는 巽卦(☴)에·脾(交遇)는 艮卦(☶)에·肝(黨與)은 乾卦(☰)에·腎(居處)은 坤卦(☷)에 각각 배치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논리 구조로 額臆臍腹은 네 正方に, 頭肩腰臀은 네 모퉁이에

배치되어, 頤는 離卦(☲) · 臆은 震卦(☳) · 臍는 坎卦(☵) · 腹은 兌卦(☱)에 각각 배치되고, 頭는 巽卦(☴) · 肩은 艮卦(☶) · 腰는 乾卦(☰) · 臀은 坤卦(☷)에 각각 결부되어 文王八卦圖에 배치된다. 이에 文王八卦圖를 통해 「性命論」의 天·人·性·命의 四象의 사유체계가 완전하게 결부됨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文王八卦圖에 의한 「性命論」의 고찰은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밝힌 『東醫壽世保元』 제1권의 다른 목차인 「四端論」·「擴充論」·「臟腑論」을 분석·고찰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文王八卦圖가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새롭게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이론적 도구(틀)가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단론」에서 논한 四象人의 喜怒哀樂에 따른 臟理의 大小를 해석하는 것과⁷⁰⁾ 「장부론」에서 논한 수곡의 溫氣·熱氣·涼氣·寒氣의 氣 흐름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는데, 文王八卦圖의 원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문헌】

『周易』.

邵康節, 『皇極經世書』.

朱熹, 『易學啓蒙』.

70) 文王八卦圖에 근거한 「사단론」에 대한 연구는 「喜怒哀樂에 대한 心理·生理的 해석과 그 易學的 근거 - 『동의수세보원』 「四端論」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25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와 「文王八卦圖에 근거한 喜怒哀樂과 四象人 臟局의 大小 형성에 관한 고찰 - 『동의수세보원』 「사단론」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72호, 한국동서철학회, 2014.)가 있다.

- 李濟馬, 『格致藁』.
_____, 『東醫壽世保元』.
_____, 『東武遺稿』.
- 류남상·임병학, 『一夫 傳記와 正易 哲學』, 도서출판 研經院, 2013.
- 六堂전집편찬위원회 편, 『육당최남선 전집8』, 현암사, 1974.
- 이창일, 『동무 이제마가 남긴 글 東武遺稿』, 창계, 1999.
- 朝光社 編輯, 『朝鮮名人傳』, 朝光社, 1948.
- 池圭鎔 譯解, 『동무 격치고 역해』, 영림사, 2001.
- 한국역사연구회편, 『역사문화수첩』, 역민사, 2009.
- 한동석, 『동의수세보원주해』, 성리회출판사, 1967.
- 홍순용·이을호, 『사상의학원론』, 행림출판, 1976.
- 김만산, 「周易의 관점에서 본 사상의학원리(1) -性命論에 관하여-」, 『東西哲學研究』 제19집, 한국동서철학연구회, 1999, 30쪽.
- 박권수, 「조선후기 象數易學의 발전과 변동 -『易學啓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제22집, 한국사상사학회, 2004, 281쪽.
- 이창일, 「하성문고 소장 『東武遺稿』에 대하여 - 문헌 성립 考定과 2차 삽입된 <東武自註> 검토를 중심으로-」, 『장서각』 제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58쪽.
- 임병학, 「『格致藁』에 나타난 이제마의 易學的 사유체계(1) - 학문연원과 四象의 역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제132집, 퇴계학연구원, 2012, 180쪽.
- _____, 「동무 이제마의 四象的 사유체계와 『맹자』」,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3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244쪽.
- _____, 「朱子の 『易學啓蒙』에 근거한 東武의 易學的 思惟의 특징 -『格致藁』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66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문화연구원, 2014, 447~448쪽.

Abstract

Study of 「Theories on Nature and Conduct」 on *DonguiSuseiBowon*
through the Diagram of King Wen's Eight Trigram

Lim, Byeong-Hak

This research was proposed of making clear the science of divination's meaning of 「Theories on Nature and Conduct(性命論)」 on *DonguiSuseiBowon* (東醫壽世保元) from based on the Diagram of King Wen's eight trigram(文王八卦圖) of I Ching.

We used a notion analysis to a method of study of this thesis. We analyzed philosophical meaning of the Diagram of King Wen's eight trigram through analyzing fundamental notions existing on I Ching.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Theories on Nature and Conduct」 on *DonguiSuseiBowon* was based on that. And we studied it based on the original text. Because this thesis is study clarifying philosophical basi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四象醫學), studied centered around the original text that is general humanities research methods.

Philosophical thought of Lee Je-ma(李濟馬) started finding out a theory of human nature. It is said that the Diagram of King Wen's eight trigram contain a principle of human nature. Especially, we can confirm that human nature is related with the Diagram of King Wen's eight trigram from saying the Lung · Spleen · Liver · Kidney(肺脾肝腎) are four aspects of four corners on *DonguiSuseiBowon*. So through the Diagram of King Wen's eight trigram I get a result that a thinking system of Heaven-Human-Nature-Conduct(天人性命) on 「Theories on Nature and Conduct」 is connect perfectly.

Key Word

Dongmu Lee Je-ma,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四象醫學), I Ching, the Diagram of King Wen's eight trigram(文王八卦圖), *DonguiSuseiBowon*, Theories on Nature and Conduct(性命論)

- 논문투고일 : 2014.6.20. 심사완료일 : 2014.8.8. 게재결정일 : 2014.8.12.